

The Keyword VI

'축적' (accumulation) - 오늘에 담겨진 미래를 보는 믿음

[히브리서 11:7]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1. 믿음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중요하다. 이 한구절 안에 엄청난 영적원리가 담겨져 있다. 믿음에 대한 이 한구절은 성도들의 현실의 삶에 대한 실재적 하늘의 대안이 된다. 신앙상담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다. 이것은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힘든 나의 현실안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은 물과 기름과 같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일에 대한 실재적 증거의 삶을 산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야곱 등을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들의 인생안에 하나님의 응답은 실재했다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메시지는 히브리서 11:1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믿음의 사람들 모두의 삶에 나타난 영적원리는 히브리서 11:1절 이다. 현재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확신이다.

* **노아 (7절)** :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 **아브라함 (8절)**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 **사라 (11절)** :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2. 미래에 대한 확신과 현재의 삶

히브리서 11:1은 '미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신념구호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의 소망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데스티니'이다. 다시 말하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1) 비관적 운명론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곳은 '현재' 나의 삶이다. '어차피 내 인생은 노력해도 소용없어. 정해져 있잖아' 이런 사람이 바로 비관적 운명론자이다. 이 사람의 특징은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다. 확정된 미래를 비관하기 때문이다.

(2) 낙관적 운명론이 믿음이 아니다.

반대로 낙관적 운명론이다. '내 인생은 어차피 잘 될 거야, 난 잘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고 건강해 보인다. 그런데 실상은 정해진 미래를 믿고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몽상가이며 이상주의자'이다.

(3) 진짜 믿음은 현실에서 미래가 결정된다 - 역사의식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현재-미래'가 구분되어 있지만 함께 소중하게 공존해 있음을 말한다. 즉, 과거없이 현재가 없고, 현재없이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도, 성공도, 모두 시간 안에서 소중하다. 그래서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시대를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주관적 사건'이 들어가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왜곡된 과거 위에 제대로 된 현재가 있을 수 없고, 그 현재에 담겨진 미래는 온전할 수 없다.

역사는 '뿌리'이며, 뿌리는 정체성을 말한다. 성경이 창세기로부터의 역사 (시간의 흐름 - 마지막 계시록까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실재적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객관적 시각을 유지한다. 복된 존재로의 사람 뿐만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수준의 사람을 보여준다. 좋은 점만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죄인된 사람의 과거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정직하다 그 죄인을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로 오셨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보여졌다. 과거는 잘못 되었지만, 잘못된 과거가 있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현재를 바꾸셨다. 현재 안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안고 오셨다. 무슨 말인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현재의 만남안에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셨다. 오늘 내 현재 안에서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 - 윌리엄 김슨 (소설가)

윌리엄 김슨이 말한 미래에 대한 정의는 너무 강력하다. 그렇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내 삶의 현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는 너무 소중하다.

3. 축적의 힘

[히브리서 11:7] ~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심판)을 보았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본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다. 그 방주가 결국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의 실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 내 미래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실상이 된다.

(1) 어떤 현실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실재이다. 오늘 나의 현실의 어려움은 (다윗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다니엘, 요셉 등) 미래의 응답을 향한 과정임을 믿으라. 그렇기에 감사해야 한다.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의 본성임을 기억하라. 불평은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출애굽 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 가나안을 바로 들어갈 수 없게 했으며, 불평하는 세대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했다)

(2) 충성된 삶을 살라.

충성된 삶은 '프로페셔널'의 삶이다. 진짜 프로, 장인들의 공통점은 충성됨이다. 충성됨의 지표가 바로 '작은 일'이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프로는 연장 탓하지 않는다. 프로가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라. 결국 주인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일상에서 살아내야 한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 어떤 것을 축적할 것인가? 그 축적이 결국 미래의 현실이 된다. 히브리서 11:1절을 이벤트 구절로 해석하지 마라. 한탕주의 신념으로 해석하지 마라.

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 말씀에 소개 되었는지를 보라.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매일 지었는지를 생각하라. 오늘 나의 하루 안에 10년후의 미래가 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 하늘의 축적이 내 인생의 실재가 된다.

[마태복음 6:19-20]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